

與 국조특위, 특검에 공소취소권 추진

대장동·대북송금 등 7개 사건
법조계 “입법권력이 직접 나서
대통령 사건 무마하려는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향후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뒤집게 된다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주도해온 국정조사 특위는 30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특검법 발의에 착수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 중인 특검법 초안에 따르면, 특검의 직무 범위 조항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검찰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검찰 반발 등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과거 해병 특검법에서도 공소 취소와 관련한 조항을 넣었다.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특검은 공소 취소 권한을 쓰지 않고 항소 취하를 했다.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박 전 단장은 1심 무죄였지만 이 대통령의 사건은 1심 중단 상태”라며 “민주당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준다는 건 입법 권력으로 대통령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정조사 특위를 꾸릴 당시 “공소 취소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마무리와 함께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법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까지 도입한다면 민주당 의원 모두가 공모해 저지르는 직권남용 범죄”라고 했다. 신지인 기자 기사 A3면



영국왕, 35년 만의 美의회 연설... 의원들 기립 박수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영국 국왕 찰스 3세(가운데)가 28일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을 하는 중 의원들이 기립 박수를 보내고 있다. 찰스 3세의 옆에는 케리랑 왕비가 앉아 있고, 뒤쪽에는 상원 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자리하고 있다. 영국 국왕이 미 의회에서 연설한 것은 1991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35년 만이다. 기사 A14면

거물급·靑참모 대거 참전... 판 커진 6·3 재보선

부산 북갑·평택을 등 14곳 확정
조국·한동훈 등 국회 입성 도전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현역 국회의원 9명이 29일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14곳으로 확정됐다. 재보선이 정례화된 200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선거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경기 평택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부산 북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천 연수갑), 이광재 민주당 전 강원지사(경기 하남갑) 등이 출마하면서 여야 ‘빅샷’의 국회 입성

여부도 관심사다.

이날 민주당에선 추미애(경기 하남갑), 박찬대(인천 연수갑), 위성곤(제주 서귀포), 전재수(부산 북갑), 민형배(광주 광산을),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 등 8명이 시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후보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사퇴했다. 앞서 재보선이 확정된 5곳까지 합쳐 총 14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지게 됐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르는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선에 압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보선 14곳 중 13곳

이 직전까지 민주당 지역구였기 때문에 전부 사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후보를 확정된 8곳 중 4곳에 청와대 출신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경기 안산갑 김남국 전 국민소통비서관, 인천 계양을 김남준 전 대변인, 충남 아산을 전은수 전 대변인, 부산 북갑 하정우 전 AI미래기획 수석 등이다. 다만 여권에서도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대거 나가면서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란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최대한 승리할 후보를 공천한다는 방침이다. 신지인·김상윤 기자 기사 A8면

558번의 해외 출장 비용 공개는 17%뿐

요지경 지방의회 (3)

시도의원 3년 6개월간 출장 보니
일정 대부분이 유명 관광지 방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6명은 2022년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모나코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에는 도의회 사무 직원 등 13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출장 계획서에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사례를 조사해 제주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썼다. 이들이 출장을 다녀와 정리한 보고서를 보면 8일간 소화한 일정 13개 중 기관 방문 일정은 이우환 미술관, 프랑스 한국 문화원, 유네스코 본부, 퐁피두센터 등 4개(31%)였다. 나머지 일정은 전부 모나코 역사 유적, 아비뇽 역사 지구, 파리 몽파르나스 타워 전망대 등 관광지를 도는 것이었다. 이들이 제출한 계획서에서 출장 예산은 1인당 320만원. 그러나 실제 쓴 돈은 알 수 없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도의원 8명 등 14명은 2022년 10월 오스트리아·독일·프랑스 등을 6박 8일간 방문했다. “충남미술관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 우수 시설을 실사하겠다”는 취지였다. 8일간 총 11개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 중 기관 방문은 독일 바트 크로이츠나흐 관광청 등 4개였다. 나머지는 오스트리아 빈브룬 궁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등 관광지 방문 일정이었다. 이들이 출장비로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없다. 해외 출장을 가려면 출장 계획서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계획서를 찾을 수 없었다. 출장 보고서에도 비용은 나와 있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작년까지 3년 6개월간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들이 다녀온 해외 출장은 총 558회였다. 해외 출장에 총 128억4616만원을 썼다. 출장당 2302만원꼴이다. 그러나 출장 보고서에 비용을 공개한 경우는 95회(17%)에 그쳤다. 김영우 기자 A4면에 계속

쿠팡 총수에 김범석 지정

공정위, 5년 만에 ‘동일인’ 변경
쿠팡 “행정소송에서 소명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법인 쿠팡에서 창업자인 김범석(미국명 법 김사진)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쿠팡이 2021년 총수 지정이 가능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된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로 지정하지 않다가 국내 기업과 형평성 논란이 일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예외 요건을 만들어 김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올해는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어야 한다” 요건을 쿠팡이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현장 조사에서 김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등기 임원에 준하는 높은 보수를 받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쿠팡의 총수가 김의장으로 바뀌면서 해외 계열사 현황 등 공시 의무가 확대되고, 김 의장과 친족이 보유한 쿠팡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외 편취 규제도 적용될 수 있다. 쿠팡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김승현 기자 기사 A2면

八面鋒

與, 쌍방울·대장동 재판의 공소 취소 권 쥔 새 특검 추진. 최대 수혜자 될 수 있는 대통령이 특검도 임명하고...

지방의회, 3년 6개월간 해외출장 558회 다녀오고 비용 공개는 17%만. 위유 아니면 숨길 필요 없을 텐데...

이란, 호르무즈서 日선박 첫 통과시킨 뒤 “양국간 긴 우정 때문”. ‘우리편 하면 이런 특혜 받아오’라는 광고.

[미등기 해제세대 회수 자산 최종 매각 공고]

공고 제 26-5495호

기존 부정 세대 중 잔금 미납으로 인해 회수된 최종 물량을 공고합니다. 이미 검증된 강남 최고의 입지를 즉시 점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본 공고는 마케팅 없이 실수요자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진행됩니다.

1) 매각 자산 개요.

-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성아파트 사거리
- 성 격: GBD중심 업무지구 내 하이엔드 랜드마크(준공 완료)
- 용 도: 외빈 의전실 및 법인 자산 보유용, 법인 임원 사택
- 현 황: 회사 보유분 및 미배정 로열 세대 최종 한정 공급

2) 매각 조건 및 주요 혜택.

- 계약금: 분양가의 5% (정액제 가능)
- 입주시기: 즉시 입주 가능 (준공 완료 자산)
- 특별지원: 일부 호실 대상 파격적인 금융 지원 혜택 제공
- 특이사항: 실물 호실 직접 확인 후 계약 체결 가능

■ 매각 및 접수 일정.

- 공고일자: 2026년 4월 30일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호실 지정 및 계약 체결 시까지
- 방문예약: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 운영시간: 평일 및 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3) 자산 가치 및 특장점.

-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더블 역세권 및 강남대로 사거리 코너 입지 독점성
- 인피니티 풀 / 미팅룸, 회의실 / 휘트니스, GX룸 / 주식 서비스 운영 중
- 강남권 업무지구(GBD) 배후 수요 및 인근 대규모 개발 호재

4) 대출과 세금.

- 대출 최대 70% 가능 (주택수 미포함)
-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배제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의무 없음 (자금 노출 최소화)

[공고상의 유의사항]

준공 완료된 실물 자산을 직접 확인하신 후 배정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된 수량으로 인해 전화 상담 후 방문 순서에 따라 호실이 배정됩니다. ※ 가족 법인: 증여의제 / 가수금 활용

본 자산은 강남권 하이엔드 오피스텔 공급 부족 상황에서 희소성이 매우 높은 매물이자, 매각 조건은 호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조기 마감에 예상되오니 조속한 확인을 권고합니다.

※ 현장명과 시공사는 유선 확인 시 공개
2026년 4월 30일

문의 및 접수처 1544-0353

※ 본 광고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제 매각 공고문입니다.